

MILAL & WORLD 03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미주밀알 단장님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청사(Casa Rosada)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02 | 칼럼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04 | 삶의 발자취

LA를 수놓은 Book Concert

06 | 살며 배우며

밀알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내가 깨달은 것

08 |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로 열린 문

10 | 꿈꾸는 밀알

디즈니월드보다 더 큰 꿈을 꿉니다

12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

14 | 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

봉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밀알

16 | 2026년 기획 연재3: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

죄와 타락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밀알&세계

뉴욕 • 마이애미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404호 | 2026년 3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뉴저지: 201-530-0355

필라델피아: 215-913-3008 | 캐나다: 416-491-0002

마이애미: 786-372-3014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밀알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생명과 목적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갑니다. 밀알 역시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사명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밀알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밀알은 장애인을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교 사역이 있지만,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함께하는 사역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밀알은 장애인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안에서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드러내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밀알은 하나”라는 말은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 속에 있지만,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최근 미주와 세계 곳곳에 새로운 밀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지역에 밀알이 있지만 멕시코에서도 새로운 밀알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밀알들이 각 나라와 땅에 심겨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자기 부인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열매를 기대합니다.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밀알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진 밀알들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지소장님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주에 약 20개의 밀알이 세워져 장애인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미와 남미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새로운 밀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이 고백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열매를 함께 바라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글 | 정진정 목사 (워싱턴밀알 단장)



LA를 수놓은 Book Concert

단장 수필집 <나는 춤추면서 걷는다> 북콘서트가 로스앤젤레스 새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책을 편집하고 발간한 '아침향기'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토) 오전 축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예배당 가득히 좌정한 분들에게서 기대감에 들뜬 표정이 잡혔습니다.

오전 11시. 아침향기 대표 강신억 목사님의 개회사가 있는 다음 황규동 목사님(LA선한목자교회)의 색소폰 연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저자 이재철 목사님이 등장하자 우리 같은 박수가 터졌고, 목사님은 먼저 기타를 치며 '내 주의 은혜 강가로'를 잔잔히 들려주었습니다.

책을 내기까지의 숨은 공로자들과 비화를 들려 준 목사님은 찬송가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른 후 정민경 집사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책 중에 '세월이 남긴 고운 잔향'을 낭독하였습니다.

영상 'My Way' 음울에 담긴 이재철 목사님의 일대기 영상이 뒀습니다. 서평은 정홍권 박사님(전, 고신대 교



수)과 오랜 친구인 하재식 목사님(LA사랑한인교회)이 해 주셨습니다. 전 미주복음방송의 아나운서 김금자 전 도사님의 '음악은 발이 없잖아'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등단한 이재철 목사는 '너는 내 아들이라'를 열창해 주셨고, '사랑으로'(해바라기 곡)를 합창 한 후 배인치 목사님(미주서부노회 증경노회장)의 축도로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부에는 저자 사인회와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LA 북콘서트는 저자의 지인들, 정종섭 목사님(새영교회), 이종희 목사님(남가주밀알 단장), 강신억 목사님(아침향기 대표)이 물심양면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알차고 정겨운 콘서트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책과 은혜를 간직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글 | 필라델피아밀알 홍보부



| 살며 배우며

밀알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내가 깨달은 것



저는 3년 전부터 건강해지고자 근력운동을 시작했지만, 달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도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달려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고, 100미터 달리기도 겨우 해내는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주일에 3~4번은 정기적으로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밀알 친구들과 러닝을 시작하고 뒤돌아보니, 제가 달리를 시작한 이유는 밀알의 친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었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비전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을 비롯하여 일이 되어가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분의 경륜임을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마라톤에 참가해 가이드로 함께 뛰었던 봉사자이자 인투교회 팀장님이신 황예지 자매님과 밀알의 비전을 나누는 중, 올해 6월에 센트럴파크에서 장애인 마라톤 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친구들과 봉사자들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지 자매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작년 11월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알 친구들은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과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친구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목적으로 친구들과 모이는 일이 밀알친구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처음으로 플러싱의 한 공원에서 러닝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작년 11월 중순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스키복처럼 아주 따뜻하게 입고 왔고 또 다른 친구는 얇은 옷차림으로 추워 보였습니다. 준비운동을 마친 뒤 친구들에게 뛰자고 아무리 말해도 쉽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 셀 동안 뛸 거예요!”하며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겨우 끝다시피 뛰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드는 생각은 ‘밀알친구들이 러닝의 경험이 없어서 뛰기를 힘들어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주 훈련 때는 한 명이 더 나와 세 명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뛰어요”





하니 세 명이 너무 잘 뛰었습니다.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멈춰요!”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때서야 우리 친구들은 멈추었습니다. 생각보다 지구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친구들도 ‘러닝’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자신의 기준치를 찾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은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훈련목표입니다. 훈련이 끝난 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 때는, 친구들 모두가 근육을 시원하게 늘리는 느낌이나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력은 좋지 않음 몸의 밸런스와 스트레칭이 약해서, 지금은 훈련할 때마다 그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양이라는 친구는 “아따 참 좋다. 나 너무 행복해”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며 자신의 행복을 표현합니다. 러닝을 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각자의 성격과 개성, 그리고 특별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의 다름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공통점은 러닝 시간, 날짜, 날씨, 장소 계획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며 묻습니다. 밀알 친구들의 특징이 정해지고 규칙적이며 예상 가능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알면 자신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렇죠. 원래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말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물건의 배치변화, 엉뚱하거나 조금한 상황을 싫어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밀알의 아이들은 각각 개성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지적장애 집단으로 묶어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로서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재주를 발견하고 칭찬해 줄 때, 그들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우리 봉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마라톤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봉사자인 제가 친구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친구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을 함께 누릴 나의 가족입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역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6월 28일에 장애인 마라톤 Achilles Hope & Possibility 4M이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열립니다. 친구들은 각각 한 명의 가이드와 함께 4마일을 뛰게 됩니다. 현재 11명의 친구들과 11명의 자원봉사자가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휴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센트럴파크에 가서 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밀알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격려가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안전사고 없이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참가하는 친구 강국이기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육신이 더욱 건강해지는 2026년 뉴욕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배한나 (뉴욕밀알 봉사자)



새로 열린 문

제 이름은 윤 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최근 법학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상실, 부르심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신 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저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력을 잃었고,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깊은 우울 속으로 빠졌고, 이전의 나에 비해 반쪽만 남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주정부 지원 시각장애인 학교에 다니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각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돕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저는 밀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목동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시설 설립에 반대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법대에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제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대 지원을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흔쾌히 추천서를 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법대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혼란이었지만, 저에게는 접근성이었습니다. 통학이 필요 없었고, 정해진 일정도 없었으며, 물리적인 장벽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사를 통해, 모교인 퍼듀대학교에서 온라인 로스쿨 과정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했고, L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의 장애지원 부서는 제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1년간의 좌절 끝에 저는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옮긴 학교는 매우 작은 학교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장애지원 부서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학생처장이 직접 제 모든 배려 사항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학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접근성이었습니다. 저는 시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음성 파일로 변환해야 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몇 시간씩,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긴 3년이 지나 저는 마침내 과정을 마쳤습니다. 쉽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완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한때는 공공영역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공로를 실천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원호 목사님께서 저를 밀알교회에서 섬기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삶은 질병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부르심을 통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저는 시력을 잃었지만 목적은 잃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하나하나가 새로운 열린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패배자가 아닌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김윤호 (뉴저지밀알)

주: 김 윤호 집사님은 14년전에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뉴저지밀알선교단 후원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월드보다 더 큰 꿈을 꿈니다



지난해 여름, 캐롤라이나밀알은 지부 역사상 가장 멀고도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썸머캠프의 일환으로 뉴저지에서 열린 사랑의캠프에 참여한 뒤, 캐나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녀오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포 앞에 선 밀알 친구들의 해맑은 미소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분명한 승리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우리 안에 갇혀 있던 한계를 실제로 넘어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여름,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산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여정, 바로 올랜도 디즈니월드 방문입니다.

사실 이 계획을 처음 나누었을 때 걱정 섞인 조언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디즈니월드를 다녀온 한 장애인 가족은 “온 가족이 장애를 가진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가기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곳인데, 그 많은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가려느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차라리 사람이 덜 붐비는 장소를 권하시며, 만만치 않은 티켓 가격과 현지 물가 등 현실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올랜도는 아직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도도 머뭇거리던 중, 한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문득 이번 도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는 소중한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조사해 보니 밀알 친구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들 중에서도 올랜도를 경험해 본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의 도전을 통해, 곁에서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지평을 더 넓혀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밀알 친구들이 당당하게 “나도 디즈니월드 가봤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남을 특별한 기억, 그리고 스스로 한계를 넘어섰다는 성취감이 여행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줄 믿음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입장료와 식비까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작년의 그 먼 여정 역시 수많은 분들의 후원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캐롤라이나밀알 친구들이 미키마우스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또 해냈어요!”라고 고백하게 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무모해 보이지만 거룩한 도전을 위해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글 | 이승민 목사 (캐롤라이나밀알 단장)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 & 아르헨티나밀알 방문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6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전역에서 장애인 선교의 현장을 섬기고 있는 밀알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분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이사야 43:19)는 말씀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역환경 속에서 밀알공동체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사랑의교실 운영, 봉사자 동원, 사역자의 영성과 자기 돌봄, 재정의 투



명성, 그리고 장애인 선교의 다음 걸음에 대한 고민 등 각 지역 사역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아르헨티나밀알 사역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섬기고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역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식탁은 밀알사역의 본질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르헨티나밀알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깊은 연대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밀알공동체가 지

역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몸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모두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심어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만남들이 각 지역 사역 가운데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미주밀알 단장 컨퍼런스를 위해 귀한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미주밀알 이사장이신 권준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으며, 밀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명을 다시 불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 미주밀알 사무국

봉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 밀알 How Milal Reshaped My Understanding of Service

Waking up on an early Saturday morning has never felt so good! With a new semester and new year starting, I have set my mind to serve in Milal with a grown heart and more understanding, which is always exciting. As the orientation began, I witnessed a growing community full of people from every walk of life, yet united by a firm determination to serve a singular purpose: bridging the gap between our local community and those with special needs.

As we shared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among one another, I found myself grappling with questions contemplating the reason why I do what I do at Milal. This made me realize the common trope of putting oneself in others' shoes had its limitations: the learnings and perspectives developed only from experiencing the diverse nature and challenges of specific circumstances. Does my service become a futile gesture since I will never fully comprehend their struggles, for which I am merely a spectator? I valued the thought that the ostracized community with no legitimate reason to be different from anyone else had to face the unnecessary challenges of being treated differently due to the overly empathetic and sympathetic attitudes of the majority. This should not be the case, I thought. I am volunteering, not for empathy nor sympathy, but in pursuit of equality.

My first encounter with sign language was on my first day of Milal for the preparation of group performances in sign language in our Night of Milal event. I found this novel approach to communication very interesting, as I have always thought a concert would always involve some form of sound. I had not put much thought into it back then, but my curiosity for such means of communication was evoked again as I recently got paired up with my new buddy, Yedam. I am filled with genuine happiness and warmth when she leans on me to observe my singing and sign language. When I discovered her favourite song was “축복합니다” after sign-singing and singing her a bunch of other songs, I felt the establishment of a deeper connection between us. There really is not any hardship in understanding another better even when one's heart is communicated through a different way as long as it is sincere.

Ever since, I have stripped myself of the stereotype that there is only one familiar method of communication for making valuable connections. In other words, navigating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should not be one's weakness. Every day at Milal reminds me that we are all created in God's image; I love His inherent goodness and value in each one of us that is truly felt in Milal.





토요일 이른 아침의 기상 이토록 상쾌했던 적이 있었나
요! 저는 새 학기와 새해를 맞이하며 더 성숙한 마음과
깊은 이해심으로 밀알에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에
서 저는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 '지역 사
회와 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자'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단단히 결속된 공동체를 목격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득 '나는 왜 밀
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
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들 말하는 '역지사지
'라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
한 특정 상황들과 그 안에 담긴 고충들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온전한 관점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찰자일 뿐인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결코 100% 이해할
수 없다면, 저의 봉사는 그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소외된 이들이 다른 이들의 과도
한 공감이나 동정 어린 시선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인 대
우를 받는 불필요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
목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 봉사하는 이유는 동정이나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어를 처음 접한 건 밀알에서의 첫날, '밀알의밤' 행사를

위한 수어공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공연에는 당연히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게, 수어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당시에는 깊게 생각
하지 못했지만, 최근 새로운 버디인 예담이와 짝이 되면
서 이 소통수단에 대한 호기심이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예담이가 제게 기대어 제가 부르는 노래와 수어를 가만
히 지켜볼 때, 제 마음은 진정한 행복과 온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여러 노래를 수어와 곁들여 불러주다 예담
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축복합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
니다.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가 익숙한 소통 방식뿐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졌습니
다. 다시 말해, 세상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향해하는 것
이 결코 누군가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밀알에서의 매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
조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밀알 안에서 진하게 느껴
지는, 우리 각자에게 깃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치를 저
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글 | Jiwoo Son (2024-08 밀알러)
번역 | 밀알&세계 편집부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기독교세계관의 화두는 창조, 타락, 구속의 연속성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현실을 죄와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장애의 현실과 만날 때, 이 죄와 타락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획 연재3: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

죄와 타락이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장애인신학이 구분하려는 중요한 질문

장애인신학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인가, 타락한 세계의 한 모습인가, 아니면 그 둘과 구분되어야 하는 현실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신앙적 시선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타락은 그 결과로 인간과 세계 전체에 미친 왜곡된 현실을 의미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이 개인의 특정한 고통이나 상태를 언제나 개인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가 깨어진 현실 안에 놓여 있음을 말합니다. 이 구분은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를 개인의 죄나 특정한 도덕적 실패의 결과로 이해하는 시도는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남겨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끊임없이 정당화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넣어 왔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이러한 연결 고리를 분명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는 죄로 나타나는 유일한 결론이 아닙니다. 또한 장애는 개인의 타락을 증명하는 표지만도 아닙니다. 장애는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한 모습이며, 그 자체로 인간의 도덕적 상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장애를 미화하기 위함도,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분은 장애인의 삶을 불필요한 신학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신학적 책임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신학은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편에서 있습니다.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현실입니다. 이 보편성의 고백 앞에서 장애인도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과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를 장애에 특별히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보편성을 스스로 훼손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신학은 타락의 언어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타락은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나 인지적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왜곡과 세계의 불완전함을 설명하는 신학적 언어입니다. 따라

서 장애는 타락의 증거라기보다,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이해는 장애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장애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죄와 타락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가 장애를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신학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장애를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해석은 복음의 능력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축소시켜 왔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낙인찍기 위해 주어진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구분은 밀알의 현장에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밀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 삶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태를 죄나 신앙의 부족으로 해석하기보다, 같은 타락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동행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장애를 이해해야 할 문제로 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판단은 줄어들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죄와 타락의 언어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언어가 됩니다.

장애인신학은 확장된 세계관을 제안합니다. 진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입니다. 밀알가족 여러분께 죄와 타락이라는 익숙한 신학적 언어를 장애인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돌아보게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신학은 죄의 개념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개념을 복음에 더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복가주밀알 단장)



| 뉴욕

토요 사랑의교실 개강

짧은 겨울 방학을 끝내고 1월 10일 2026년 전반기 토요 사랑의교실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밀알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한해를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용기가 생깁니다. 올해도 분명 어려움도 있고 힘들 일도 있겠지만 늘 그랬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뉴욕밀알선교단의 사역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준비모임

4월 18일 오후 6시 DMOS Manor에서 2026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스텝들과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청장과 플라이어를 준비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봅니다. 찾아 주신 분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장애인 친구들이 소중한 일원으로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C축구팀 밀알방문

JC축구팀은 뉴욕일원의 축구를 사랑하는 친목단체입니다. 축구를 통해 친목을 다지며 지역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임원님들께서 장애인 친구들을 격려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고 축구팀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신 후원금, 정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플레 치킨 파티

밀알 회원 중에 한나 선생님은 치플레 체인점을 운영하시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치플레 파티를 열어 주셨습니다. 인투교회 재환 선생님께서 음식을 손수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했고 풍성했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메뉴에 한 번 놀라고 음식 맛에 두 번 놀라고 정말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됩니다.

뉴욕밀알을 찾아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NCF, 나무교회, 한인동산교회에서 밀알을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들의 위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뜨거운 친교 시간도 나눴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밀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가운 얼굴, 마주잡은 손, 그리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밀알과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2026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번 행사 준비에 함께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뜨거운 체험을 나누게 해주세요. 후원해 주시는 손길도 많이 연결해 주셔서 이번 행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 2026년을 출발하는 뉴욕밀알선교과 친구들에게 소망이 넘치길 기도해 주세요. 밀알에서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길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올 한해도 건강하고 밝은 웃음꽃이 많이 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운영과 명희 자매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친구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 수치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6월 28일 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데 뉴욕밀알친구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뉴저지

사랑의교실

개학: 사랑의교실이 2주 방학을 하고 1월 10일(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매월 첫 주에는 온누리교회 청년부, 둘째 주에는 GIM(Grace In Motion), 셋째 주에는 새벽이슬, 넷째 주에는 고엘교회 청년부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인도해 주십니다. 더 많은 교회 청년부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자교육: 17일 토요일 새로운 학생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스텝 임솔 형제의 주관으로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학생봉사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더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AACC 후원금 전달: 강혜미 박사님은 10년 이 넘게 Youth Orchestra 연주회를 하여 모아진 기금을 장애인 선교를 위해 후원하십니다. 25년 12월에 연주회를 마치고 1월 24일(토) 연주를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후원금 2천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원: 새해를 시작하며 사랑의교실 식사후원을 찾고 있습니다. 1월 17일에는 배종덕 장로님께서 한 끼 \$800을 후원해 주시고 2월 7일에는 Nice Van LLC 홍기원님께서 \$1,0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 미팅: 새해를 맞이하여 스텝들이 10일 오후 8시 줌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스텝으로 봉사해 주어 사랑의교실이 활기에 넘칩니다. 26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교실이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평가회 및 위로회

지난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위하여 몇 개월 동안 직접 또는 줌으로 모여서 수고하신 운영위원들이 연말이 지나 1월 31일(토) 오후 5시 밀알에서 평가 및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Show Me Your Heart 재단 원혜경 대표님께서 스노우 크랩으로 풍성하게 모든 분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수고하심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디너 행사가 발전해 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밀알동산교회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배: 2월 1일(주일)에는 김윤호 집사님의 법학박사 학위취득 축하 겸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출석하는 EM 성도들과 어머니 김순환 권사님이 출석하는 밀알동산교회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축하 피아노 반주와 여성교회 회원들의 파송의 노래, 밀알 친구들의 꽃다발 증정 등. 모두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사님은 12년 전에 뇌종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절망의 나날을 보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긴 시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여 어려운 박사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어머니 김순환 권사님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윤호 집사님의 인내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학생봉사자 어워드: 지난 3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한 학생봉사자들의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데니얼, 폴 그리고 사라가 그 대상이었고 봉사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을 발표하여 밀알 가족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인도: 2월 7일 주일 예배에 김동권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밀알 칼리지

• 학부모님들의 주선으로 16일 오후 2시에 스텝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밀알 칼리지의 발전과 더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를 의논하였습니다.

• 캐니가 왔어요. 작년 10월 어머니께서 소천 하셔서 캐니는 그룹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룹홈이 버겐필드로 정해지고 1월부터 캐니가 밀알 칼리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캐니는 밀알에 와서 한식도 잘 먹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밀알이 캐니의 보호자가 되어 어머니처럼 잘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밀알 친구 이 초롱이 밀알에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매일 스텝들이 라이드를 도와주고 있는데 Access Link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정혜영 내과에 감사드립니다. 초롱 자매가 속히 교통수단이 해결되어 밀알 칼리지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매주 목요일은 Outing하는 날입니다. 2월 5일에는 Gunnen Heim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있는 아트 클래스에 진심인 우리 친구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림 감상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 기호선 형제는 벌써 몇 년동안 매일 1회씩

방문하여 친구들의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겨우내 춥고 폭설이 있어서 이번에는 2월 2일에 봉사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예뻐졌습니다.

강원호 목사 동정

강원호 목사는 니과라과 드레스 피아스 훈련에 강사로 2월 2일부터 7일까지 함께 하시고 8일부터 17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미주밀알 단장 수련회에 참가하십니다.

밀알 마더홀 준비

뉴저지밀알은 두 종류의 마더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된 노인과 은퇴선교사들의 심터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그룹홀입니다. 첫 번째 마더홀은 밀알꿈터의 룸을 개조하여 현재 8명의 홀로된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번째 장애인 그룹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춘길 목사님(필그림선교회 담임)과 박효성 목사님(전 뉴욕제일한인교회 담임) 그리고 강원호 목사님(뉴저지 밀알 단장)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김동권 목사님(새사람교회 담임)이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그룹홀을 위하여 \$10,000을 후원하실 100명을 모집(\$1,000,000)하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가진 노부모님들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사후에 장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입니다. 밀알 마더홀이 그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10,000가 아니어도 오병이어를 바친 소년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필라

밀알선교단 설립 39주년 자축

2026년 2월 5일(수)로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나긴 세월동안 단장님들과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필라델피아 밀알선교단이 있습니다. 1987년 2월 5일, 필라델피아 밀알선교단 설립예배를 드리며 미주밀알 최초의 지단이 출발하였습니다.

1대 단장으로는 황성기 목사님, 2대는 광청규 목사님이 헌신을 하셨고, 3대 단장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2003년 7월 10일 부임하여 24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39년을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동료들의 사랑이 너무도 귀합니다. 2월 3일(화) 축하 케이크에 접화하고 자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계밀알연합회 Zoom 신년감사예배

새해 2026년을 맞이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밀알지체들이 Zoom 신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4일(주일) 오후 8시(미주동부시간)에 드려진 예배에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밀알에 단장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는 한국 밀알총단장 정용모 목사님(경기광주밀알)이 보

셨고, 대표 기도는 미주밀알 총단장 장용준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재서 총재님은 성경 요한복음 12:24을 중심으로 “밀알의 보람”이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 2부에는 신년하례식이 미주밀알 부총단장 이종희 목사님(남가주밀알)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돌아가며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두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추첨하는 순서가 이어져 모두의 웃음을 유발하였습니다. 참으로 밀알은 하나! 그리고 세계로!

필라교협 & 목사회연합 신년감사예배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도 새해를 맞이하여 필라교협협의회와 목사회가 의기투합하여 신년감사하례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최장소인 예수사랑교회(김곤 목사 사무)에는 무려 80여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모여왔습니다.

사회는 교협회장 강학구 목사님(필라제일장로교회)이 보셨습니다. 설교는 목사회 회장 김곤 목사님이 “누구보다 목회자들이 어려울 때 서로를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시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부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마련한 육개장이 모두의 마음을 풍족하게 했고, 3부에 진행된 척사대회에서는 1~3월생, 4~6월생, 7~9월생, 10~12월생으로 구성된 4팀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교협과 목사회에서 준비한 상품과 기념품을 가슴에 안고 행복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

미주동부 총신 정기총회 & 신년하례회

총회의 문을 연 1부 예배는 회장 장의한 목사(79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 함께 기원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른 후 부회장 강원호 목사(81회)가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증경회장 이재철 목사(79회)의 특송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열창 후 수석부회장 우종현 목사(85회)의 촌철살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눅 17:5-6)은 “목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베테랑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끈한 훈화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파괴적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소명 혹은 직업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먼저 모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 목사는 “총신에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은 세상의 논리성과 성경을 혼합하지 않는 법, 즉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화살은 청중이 아닌 설교자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2부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동문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는 신년하례회와 친교 시간이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단장 이재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년센스 퀴즈로부터 친목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한국 고유의 윗놀이인 금방 달아오르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데 큰 목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장소와 식사를 준비해 준 임마누엘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 미국 땅에서 동문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모일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뉴저지반석교회 초청 설교

밀알선교단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손길 중에 특별히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뉴저지 반석교회(오준택 목사 사무)입니다. 담임 오준택 목사님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이 밀알선교단에 따뜻한 보살핌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단장 이재철 목사님을 초청하는 반석교회에 금년 2026년 셋째 주일(18일)에 밀알선교단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고 이재철 목사님은 <마태복음 20:1~16>을 중심으로 “경이로움에 눈뜨는 날”이라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포도원을 경영하기보다 하루 연명을 위해 어렵사리 살아가는 일용직 근무자들을 배려하고 아량과 사랑을 베푸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경이로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을 넘어 사람들을 경탄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자”고 설교하셨습니다.

광고 시간에 반석교회에서는 거금의 밀알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지순례(3월) 경비 일체를 헌금하여 지원 해 주셨습니다. 진정 하해(河海)와 같은 사랑입니다. 오준택 목사님, 반석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단장 남가주 방문(미주복음방송 출연)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L.A.(남가주)를 방문 하였습니다. 1월 20일(화)에 도착한 단장님은 분주한 일정을 감당하셨습니다. 22일(목) 오전 10:30분,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아침마당>에 출연하였습니다. MC 공미연 아나운서의 능숙한 진행으로 단장님이 남가주를 방문하게 된 동기, 24일(토)에 열리는 <북콘서트>를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내기까지의 비화, 필라델피아 북콘서트를 거쳐 L.A.에서의 북콘서트를 열기까지의 애뜻한 사연이 소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후 남가주밀알 이종희 목사님, 새영교회 정종섭 목사님, LA사랑한인교회 하재식 목사님, 아침찬기 대표 강신익 목사님,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목사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남가주밀알 목요모임 설교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오픈지카운티 목요모임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 성경 <사사기 3:15~23>을 중심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비록 오른 쪽 장애를 가진 예후는 쓸 수 있는 왼손을 연마하여 오만의 속국으로 지내며 고통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적장 애글론을 처형하고 대승리를 이끌어 무려 80년 대평성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에 그는 장애를 넘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장애인들에게 있습니다. 상심하지 말고 예후와 가능성에 힘을 실으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말미 "너는 내 아들이라"를 열창하여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북콘서트 성황

남가주(L.A.)에서도 단장 이재철 목사의 저서 <나는 춤추면서 걷는다>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4일(토) 오전 11시, 오렌지카운티 놀워크에 위치한 새영교회(정종섭 목사 시무)에 삼삼오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편집장 강신익 목사님(아침향기 대표)의 개회사 후, 주인공 이재철 목사님이 단에 올라 인사를 올린 후 직접 기타 연주로 "내 주의 강가로"와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열창하였습니다. 이후 이일남 집사님이 제작한 이재철 목사의 인생영상이 뜬 후 책에 수록된 수필 두 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황복권 목사님의 색소폰 연주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이후 정홍권 목사님, 하재식 목사님의 촌철살인과 유티가 돋보이는 서평이 있었습니다. 다시 단에 오른 이재철 목사님은 인생 고백 같은 곡 "너는 내 아들이라"를 불러 모두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 책을 구입해 주시고 격려해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화요 믿음의교실 Open

구립 7월에 방학에 들어갔던 성인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의 모임 <화요 믿음의 교실>이 2월 3일(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 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노기주 집사님이 10여년 만에 모임에 참석을 하셨고, 권재기 집사님이 봉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중에 1월에 생일을 맞이한 고흥숙 집사님, 변윤미 집사님, 이민성 집사님의 생일 축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봄학기 개학

2월 7일(토) 토요 사랑의교실이 먼저 오픈하여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장애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이후 다채로운 활동으로 첫날 일정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의교실에는 많은 Youth Group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옵니다. 전혀 생소한 사역이기에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공백을 깨고 지지개를 켜는 단계이기에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훈련된 자원봉사들은 다부진 표정으로 교육에 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마음 따뜻한 분들을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모임인 화요 믿음의교실(매주 화요일)에 장애인들을 라이프해 주실 분, 악기연주와 찬양으로 모임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서 장애 아동들을 Care 해 주실 분

들도 기다립니다. Youth Group 학생들은 대학교 진학에 필요한 Credit을 발행합니다. 9학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보고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 <주간 필라>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30분. 필라기독교방송국 '밀알의 소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다섯 번 들어있는 달에는 Gwynedd 양로원 목요예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 4일(주일), 11일(주일): 메인라인제일장로교회
- 18일(주일): 뉴저지반석교회(오준택 목사 시무)
- 22일(목): 오후 7:30 남가주밀알선교단 목요모임
- 25일(주일): 새영교회(정종섭 목사 시무)

<방문>

- 4일(주일): 오후 8시 세계밀알연합회(총재: 이재서 총재) Zoom 신년하례회
- 11일(주일): 오후 5시 필라교협 & 목사회 신년감사예배
- 12일(월): 오전 10시 미주동부총신동문회 신년하례회.(특송)
- 14일(수): 故 정영근 권사 장례예배(이무상 목사 모친)
- 22일(목):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아침마당" 출연방송
- 24일(토) 오전 11시 이재철 목사 수필집 북콘서트 장소: 새영교회

| 마이애미

토요 사랑의교실

2026년 2월의 첫 사랑의교실이 2월 7일(토) 오후 1시, 선셋 사랑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고등학생 봉사자인 그레이스, 저스틴, 앤드류, 조슈아가 미조와 예세니아, 시저, 알레한드, 에릭을 섬겨주었습니다. 브라이스 목사님께서 기도도 예배의 문을 열어 주셨고, 찬양과 율동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배웠습니다.

크라프트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할 하트 카드와 하트 장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을 돕기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애쓰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KPCM 사랑의교실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예술 양과 미조 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는 회복 중인 오손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공이나 도구를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미조는 장애인 미술대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셋 또는 KPCM 사랑의교실에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박민선 선생님(786-372-3014)에게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작은 손길과 웃음이 더욱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KPCM) 주일예배

장애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주일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 소망부실에서 소망부 예배가 드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천 명을 먹이시다',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라는 주제로 성경 속 인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씀 내용에 맞춘 공과 활동과 자유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선생님들과 함께 멋진 단체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주일 소망부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따뜻한 예배입니다.

사랑의교실 교재 안내

사랑의교실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랑의교실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의 능력에 맞는 성경공부 교재와 크래프트 재료를 함께 보내 드리며, 필요할 경우 줌(Zoom)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부모님께서서는 박민선 선생님(786-372-3014)에게 문자로 연락해 주세요.

<밀알&세계> 안내

마이애미밀알은 장애인 사역의 홍보, 계몽을 위해 월간지 <밀알&세계>를 지역 교회와 각 독자들에게 매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오리엔탈 마트(Fort Lauderdale)에 매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지역에서 <밀알&세계>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miamimilal2019@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안내

마이애미밀알의 사역을 후원해 주실 분은 체크에 "Wheat Mission in Miami"로 쓰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주소: 8601 SW 68th Ct. Unit 1, Pinecrest, FL 33156 또는 마이애미한인장로교회(KPCM)나 선셋교회를 통해 직접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 토요 사랑의교실과 주일 소망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Sunset 교회와 KPCM이 하나님의 임재로 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더 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사랑의교실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모든 봉사자 선생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미조, 예술, 고은이, 지노, 루다, 코트니, 크리스토퍼, 크리스찬, 예세니아, 시저, 에릭, 알레한드로, 산티아고, Arthur가 늘 건강하고 밝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재정보고 2025년 12월

| 뉴욕

■ INCOME: \$29,299.42

Individuals: \$6,110.42

\$20 Karen Han, Sujin No, Chulmin Kwon, Seung Yun Lee / \$40 Yoon Kyoung Choi / \$50 Sun Jun / \$60 Juokyi / \$100 Eunjoo Kim, Jun & Joyce Lee, Seop Song, Young Chul Park, Soo Young Lim, Soo Jung Yi, No Name, Sunil Lee / \$200 Jasong Kim & Byongin Choi, Hannah Bae, So Yoon Kim / \$300 Lev Kondo / \$350 /42 Yire Hwang / \$500 Ki R Chung, Joon Sang Yoon / \$600 Katherin Lee / \$730 Bill C & Mee Yung Kim / \$1,500 Olivia Byun

Church & Business: \$9,689.00

\$100 Tou Boutique LLC, Woori Church of New York / \$200 The Moak Yang Presbyterian Church / \$300 The Korean Church of Queens / \$439 Class Agape / \$500 Eyes1 Eyecare, Namu Church of NY, 뉴욕총신교회 / \$600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 \$750 New Dream United Methodist Church / \$1,200 The Shin Kwang church of New York / \$1,500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 \$3,000 New Creation Fellowship

Board Membership: \$3,000.00

Hae Nam Lee

Designated Donation: \$10,500.00

\$10,500 Musical Feast 광고&후원금(NY IN2 Church, Jan Chi Ma Eul LLC, Hollis Contracting Inc,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Daniel Jang)

■ EXPENSE: \$27,895.54

Group Home: \$7,525.90

모기지 \$3,818.21 / 수리비 \$1,044.10 / Gas \$1,010.16 / 소독 \$50 / 비품구입비 \$956.66 / 정원 관리비 \$348.40 / Spectrum \$298.37

Class Agape: \$3,228.58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성인반) \$1,500 /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 (청소년반) \$1,500 / 비품구입비 \$228.58.

Mission Expense: \$2,439.58

직원인건비(1명) \$1,274 / 상회비(2025년 11월) \$665.58 / 선교비 \$500

Evangelism Service: \$4,533.17

활동비 \$1,000 / 경조비 \$133.17 / 장애인보조 \$2,600 / 전도봉사비 \$800.

Admin & Management: \$6,544.98

인건비(1명) \$2,000 / Tax \$700 / 비품구입비 \$914.22 / 사무실 렌트비 \$2,269.60 / Mailing \$32.96 / 은행비 \$28.20 / Retirement Benefit \$600

Auto Expense: \$3,623.33

Insurance \$2,880 / 유지비 \$220.43 / E-Z Pass \$480 / Parking Fee \$42.9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0,615.8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2,019.72

| 뉴저지

■ INCOME: \$30,031.32

Individuals: \$8,691.32

\$10 Paige Kim, Jinho Seo, Hernjin Kim, 이성운, So Hyung Cho / \$20 이태자, 최윤경, 장영빈&장규진 / \$30 권정아, 오송자, 이경련, Kyungsook C. Sakumoto / \$40 Simon Bae Park / \$50 김봉례, 이현정, Jae Don Kim & Esther Kim, 엄이든&엄예든, 이성진, 안상국&안은숙, 이기호 / \$60 Young Park / \$70 Tori P. Scott / \$80 이기영&이광 / \$100 Young at Heart (김종훈), Moon Hee Chang, 김일영, Jun Kim, 김애리&김주천, 김정화, 박호경&민춘식, 서정용&서덕희, 이상욱&이옥진, Soo Woong & Chan Hyub Yoon, 이윤아 / \$146.32 길해민 / \$150 Yun H. Lee, Roy Hobbler / \$200 유시춘, 이동수&곽선희, Richard Yoo / \$300무명, 김정혜, 최윤민 / \$350 박찬효 / \$365 이순자 / \$500 강원호&강미경, 박지혜, 신용호 / \$600 지현&김영옥 / \$2000 김숙자

Church & Business: \$11,900.00

\$100 Grace Peace Reform, Strom's Cleaners(한원민), Jesus Dream Church / \$200 Parker 19 LLC, Calvary Church, 뉴저지 참된교회 / \$300 Mendham Sunny Nail Inc., One Community Church / \$500 U&I Import Inc., Pentius USA Inc. / \$600 뉴저지 믿음장로교회, Alex Noh, Green Village cleaners (박종훈), Dashing Diva / \$1000 뉴욕한인경제인협회, Fidelity, 주와함께하는교회 / \$4000 Kwon's Foundation Inc.

Designated Donation: \$9,440.00

<방글라데시 \$960: \$60 이화순 / \$100 박찬효, 채경희 / \$200 김정혜 / \$500 Sol Lim> <꿈터 \$6,880: \$100 홍효선, 이지영&이재정, 조하진 / \$150 박찬효 / \$180 한동대 / \$300 박승범 / \$450 차요한 / \$500 Joyful Church, 임성만, 오해리, John Bang, Vibrance Church, 하사무엘 / \$600 임정규 / \$700 강삼순 / \$1200 주동행교회(2달)> <사랑의교실 \$1600: \$800 찬양교회, 토요사랑의교실 부모회>

■ EXPENSE: \$37,616.46

Admin & Management: \$3,234.34

사무사역사(2인) \$1540 / 은행수수료 \$47.68 / 사무용품 \$157.74 / 전화비 \$234.22 / 인터넷 \$423.45 / Printer

\$314.91 / 홈페이지 \$94.99 / USPS \$309.02 / 공기 청정기 &정수기 \$112.33

Mission Expense: \$24,585.66

단장 사례비 \$1000 / 밀린 사례비 \$2400 / 상회비 \$286.22 / 연금 \$500 / 활동비 \$679.49 / 사택 \$1990.12 / 보험 \$6,847.48 / 선교 \$800 / 회계사 \$230 / Auto & Ezpass \$530.66 / Gas \$316.33 / 토요일교실 수고비 \$200 / 토요일교실 식사 \$374.81 / 식사 \$548.57 / 12 Basket \$3300 / 밀알&세계 \$1045 / USLEC Gala \$500 / KACANJ 140주년 음악회 \$1000 / 사과 \$700 / 책 \$750 / 교회 지원 \$186.98

Dream Center: \$9,796.46

SBA loan \$3,670 / 용자 \$153 / 관리비 \$4184 / 인건비 \$1050 / Water Department \$99.44 / 쓰레기(2달) \$640.02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20,202.9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7,788.11

| 필라

■ INCOME: \$15,955.00

Board Member: \$300.00

\$200 최현진 / \$100 이재철

Individuals: \$5,305.00

\$20 이경애, 황인권 / \$30 장승태 / \$40 이영선 / \$50 양찬모, 정영려, 무명1 / \$60 유경자 / \$75 이광영 / \$100 김만우, 김선미, 민경희, 박동희, 이강목, 이기복, 정한나, 현옥 라그네카, 무명1 / \$200 박명희 / \$210 무명1 / \$300 김용기, 이동희 / \$400 심의정 / \$500 이재철 / \$2,000 David Kim

Church & Business: \$5,350.00

\$100 마디병원, 네이플스한인교회 / \$200 Jae & Dae Foundation(김재신) / \$250 기쁨의교회 / \$300 메인라인제일장로교회, 안디옥교회 / \$500 리하이벨리교회 / \$600 골든크로스, 한식당 본가 / \$1,200 델라웨어영원한교회, 체리힐제일감리교회

Specials: \$5,000.00

\$200 무명 1(사랑의교실 지정) / \$500 마디병원(특별헌금) / \$1,000 몽고메리교회(작은 밀알의밤) / \$300 고사리판매 / \$3,000 참기름 판매금

■ EXPENSE: \$9,897.73

Admin & Management: \$1,457.68

간사사례 \$500 / 밀알통신비 \$159.12 / 인터넷 \$107.28 / 사무용품 \$203.80 / 난방비 \$107.33 / 전기세 \$187.18 / 하수도세 \$151.11 / 수도세 \$41.86

Maintenance: \$527.55

모기지 \$300 / 정수기 \$27.55 / 건물보험료 \$200

Media Mission: \$1,031.71

밀알&세계인쇄비 \$680 / 밀알&세계발송비 \$310 / 홈페이지 관리비 \$41.71

Mission Expense: \$3,095.00

가스&심방경비 \$295 / 단장사례비 \$1,700 / 상회비 \$500 / 밀알장학금 \$300 / 활동비 \$300

Class of Agape: \$5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400 / 교육비 \$100

Auto Expense: \$225.79

자동차보험

Welfare: \$2,300.00

사택보조 \$1,500 / 은급비 \$500 / SBA 상환 \$300

Specials: \$760.00

2026 다이어리 구입 \$260 / 장애인 성탄 선물비 \$500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7,038.3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3,095.61

| 마이애미

■ INCOME: \$1200.00

Individuals: \$800.00

\$300 김창용&김성옥 / \$500 지형진

Designated Donation: \$400.00

미주밀알선교단

Support for Sunday worship and lunch: KPCM

■ EXPENSE: \$ 658.27

Missionary activity: \$400.00

활동비

Media Mission: \$150.00

밀알&세계(12월) \$100 / Stamps충전 \$50

Admin & Management: \$82.99

상회비 \$12 / stamps.com fee \$20.99 / 은퇴 단장님 지원 \$50

Christmas gifts for volunteers: \$25.28

고등학생 봉사자 선물(도서)

Previous month carry-over balance: \$4,129.66

Next month carry-over balance: \$4,671.39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ป์,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김자송 단장) | nymilal.org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 Tel: 917-692-7755, 718-662-8779 / Email: nymilal@hotmail.com

밀알홀: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온라인 (Zoom)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센터
밀알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밀알 바이블 클래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3:30	밀알센터
온라인 예배 방송 (YouTube, Milal connect)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2:00	
Self-direction (뉴욕시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밀알센터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강원호 단장) | njmilal.org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 Tel: 201-530-0355 / Email: miju92@gmail.com

데이 프로그램(밀알칼리지)	매주 월-금	오전 9:30 - 오후 2:30	밀알컴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밀알컴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1:00	밀알컴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주일학교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00	밀알컴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중보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7:30 - 오후 8:30		
방송설교 (AM 1660)	매주 주일	오전 9:30 - 오후 10: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이재철 단장) | 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믿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박선강 단장)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Milal Mission in Miami 마이애미밀알지소 (박민선 지소장)

8601 SW 68th Ct. Unit 1, Pinecrest, FL 33156 / Tel: 786-372-3014 / Email: miamimilal2019@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오후 3:30	마이애미하인장로교회 소망부실	9730 Stirling Rd. Cooper City, FL 33024
매월 첫째 주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오후 2:00	선셋장로교회 친교실	3550 Davie Blvd. Ft Lauderdale, FL 33312
주일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12:15 / 오후 1:00 ~ 오후 2:00	마이애미하인장로교회 소망부실	9730 Stirling Rd. Cooper City, FL 33024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